

누가 얻고 누가 잃었는가

법안문의 선사께서 결제철의 어느 날, 사시공양 시간이 되기 전에 큰방에 들어와서는 손가락으로 발(髮)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동시에 두 승려가 발을 걷어 말아 올렸습니다. 이에 법안 선사가 말하셨습니다. "일득일실(一得一失)이로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결제란 얻는 것이 있거나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득(一得)이라거나 일실(一失)이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결제를 하는 납자가 아닙니다. 지금 '일득일실(一

得一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의 깨달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을 알지도 못하면서 선지식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이가 알아도 모를 것이요, 더욱이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더더욱 모를 것은 뻔한 일입니다. 얻음과 잃음의 소견을 내는 자리에서는 이를 전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남에게 자신 있게 일득일실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얻고 한 사람은 잃었다고 하니 누가 그 꼭짓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름지기 뼈를 짚는

노력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승이 고구정령하게 당부하는 말을 듣고서 발심하여 결제동안 참으로 율령정진을 한다면 마침내 일득일실의 경지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략) 누가 얻고 누가 잃었는가? 만약 이 속을 향하여 바른 안목을 얻는다면 바로 낙처를 알 것이니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100년만에 처음 일반에 공개 범어사 금어선원

구름은 두터웠고 바람은 어지러웠다. 노란 은행잎은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그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11월 26일 동안거 결제 법회가 열린 선학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 금강계단 보제루. "도대체 선(禪)이 무엇인가?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했는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은 결제 대중들을 향해 물음을 던졌다. 살얼음판을 걷듯, 화두일념으로 100일의 대정전에 들어선 수좌들을 향해 던져진 물음이다.

에 들어갔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이것'을 향한 목숨 건 정진이 시작된 것이다. 금어선원 동쪽의 대나무 숲을 거닐다 바람에 부딪히는 댓잎 소리를 듣고 홀연 깨달음을 이룬 동산 스님의 수행 정신이 서린 이곳에서 수행납자들도 대수에 이는 바람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마저 화두에 던져 놓고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이상씩 이어지는 정진 동안, 온갖 지식과 고정관념을 잠재워야 한다. 깨닫겠다는 한생각마저도 쉬고 또 쉬어

깨닫겠다 한생각 마저 쉬고 또 쉬고...

미동도 없는 대중들의 고요에 차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가 더욱 선명해진다. "저 목탁소리 듣는 놈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보면 목탁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심지어는 노름꾼 싸움소리도 법문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일체의 상을 털어버리면 일체가 법문임을 알게 됩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는 분심을 내어 지혜와 행을 구비하고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범어사 금어선원(金魚禪院) 결제 대중 27명, 선내 암자 대성암 결제 대중 45명, 재가자 선방 결제 대중 55명에게 조실 스님의 법문을 달음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 지유 스님의 법문으로 결제 대중들은 3개월 동안 이어갈 공부의 길잡이를 얻었다.

아하는 것이다. 금어선원에 입학한 수좌 27명은 다른 선원과는 달리 자율 정진이 없는 금어선원의 특징 때문에 예불, 공양, 취침, 기상 등을 똑 같이 해야 한다. 특히 20년 전부터 금어선원에 방선되어 왔던 대중들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이들만 조용히 일어나 수행을 할 뿐이다. 또한 매일 아침 공양 뒤 선원 대중 모두가 빗자루를 들고 일주일까지 비질을 하는 율령이 전통처럼 돼 있다. 오후가 되자 비가 그치고 날이 활짝 개었다. 길고 긴 의식의 구름이 걷힌 끝에 드러날 본래면목처럼 푸른 하늘빛이 시렸다. 금어선원에 입학한 수좌스님들을 외호하며 전 사부대중이 환형 정전에 들어간 범어사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결제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첫날 정진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각 총림 결제범어(요약) 전문은 buddhanews.com에

도(道)는 재주와 지혜로 얻지 못함이라

원담 스님 (덕총림 수덕사 방장)

(종략) 납아가 이르는 곳 마다 고향인데 몇 사람이냐 객의 수심 가운데 지냈던고! 한 소리 큰 할에 삼천세계를 타파하니 눈 속에 도화가 조각조각 날아다니네

이에 노사께서 반문하시길 "납아다니는 조각은 어느 곳에 떨어졌는가?" 하시니 납자가 답하기를 "거북털과 토끼뽀이로다"하니 노사께서 크게 웃으시며 다시 대중에게 이르시되 "각각 한 마디씩 일러라"하시니 법회(法會)비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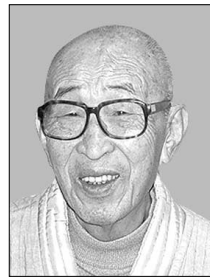
가 나와서 "눈이 녹으니 한 조각 땅입니다" 하거늘 노사께서 이르시되 "다만 한 조각 땅을 얻었느니라"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일러보라! 납아다니는 조각은 어느 곳에 떨어졌는가? 알았다면 납자의 그 허름은 어디에 있는가? 이빨이 없으면 사자를 물 수 없느니라. 발 밑 섬돌 아래엔 풀이 삼장(三丈)이나 깊었다. 다만 도(道)는 재주와 지혜로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종략)

맑은날에도 눈먼 자는 볼 수 없나니...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공경요도(空玄要道)는 시고금무차지종(是古今無差之宗)이요, 환혁영공(煥赫靈空)은 내불조출신지로(乃佛祖出身之路)니, 하처경구현묘(何處更求玄妙)가 즉금정성정신(卽今正省精神)이며 불수의하별예구(不須慮下別提)로다.

지재목전자차과(只在目前自蹉過)이니, 소위자지공중(所謂迷氏宮中)에서 원생두술(願生兜率)하고, 함원전이(咸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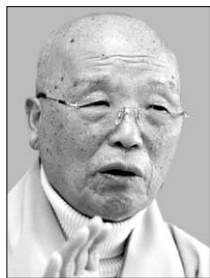
殿裏)하야, 광역장안(更覓長安)이로다. 청정수이(淸淸水裏)에서 유어자미(游魚自迷)하고, 혁혁일중(赫赫日中)에 맹자불견(盲者不見)이로다. 휴휴(休休)라, 제득혈류무용처(啼得血流無用處)이니, 불어함구과잔동절(不如鹹口過殘冬節)하리라.

울 겨울에는 목숨 걸고 노력합시다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절단유무중간(截斷有無中間)하여 자고탈체(自孤脫體)이니 무의활탁탁(無依活卓卓)이요 제허확정절방우(齋虛確正絕方隅)로다 있고 없고 그 사이를 함께 끊어서 저 홀로 온전히 몸을 벗으니 기발 없이 활발발 우뚝 솟아나 갠 허공 맑게 트이고 온갖 모서리가 무너지는도다 (종략)

장부들이여, 울 겨울에는 목숨을 걸고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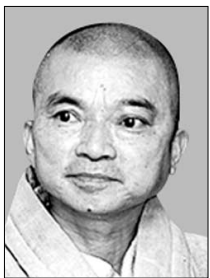


력합시다. 오늘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매일어(偶來一如), 잠자는 중에도 살피면서 정진하고 정진합시다. 이렇게 한 집에 모여 같이 머리 깎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는 이 일대사의 거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종략) 너희가 선방에 앉아 있는 뜻을 묻는다 마음도 길도 아닌 그 무엇인가 바로 오묘한 마음을 잘 살펴 반연을 끊으면 달마를 보리라

오매불망 참구해야 실참실구니라

지혜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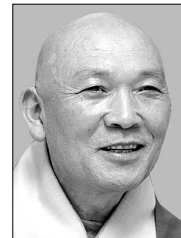
대량왕도 불식(對梁王道 不識)하니 호개서래 곡조(好箇西來 曲調)로다 거세인과 부득(擧世人和 不得)이니 청로고범 청파로(靑蘿故泛 淸波路)로구나 양무제를 만나서 모른다했거니 서쪽에서 온 좋은 곡조로구나 세상 사람과 화합하지 않았으니 맑은 파도 길에 푸른 갈대로 뗏구나 (종략) 죽은 가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흥내만 내는 가풍과 입으로만 떠벌리는 가풍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종략)



그러기에 삼천 년 전에 이미 세 존이 연꽃을 들어 보였고 가섭 존자가 파안미소를 보였습니다. 이로부터 1700 공안이 나왔고 제불조사의 계승 이 나와 명실(名實)이 상부(相符)하였습니다. 오로지 율령정진하고 또 율령정진해서 오매불망 참구해야 실참실구입니다. 여기에서 달마대사의 "모른다(不識)"는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 참구해야 합니다. "모른다"를 알았다면 무엇을 알았는지 내보여야 합니다. (종략)

“참선엔 출제가 따로 없고 발심이 문제”

인터뷰 2 금어선원 유나 인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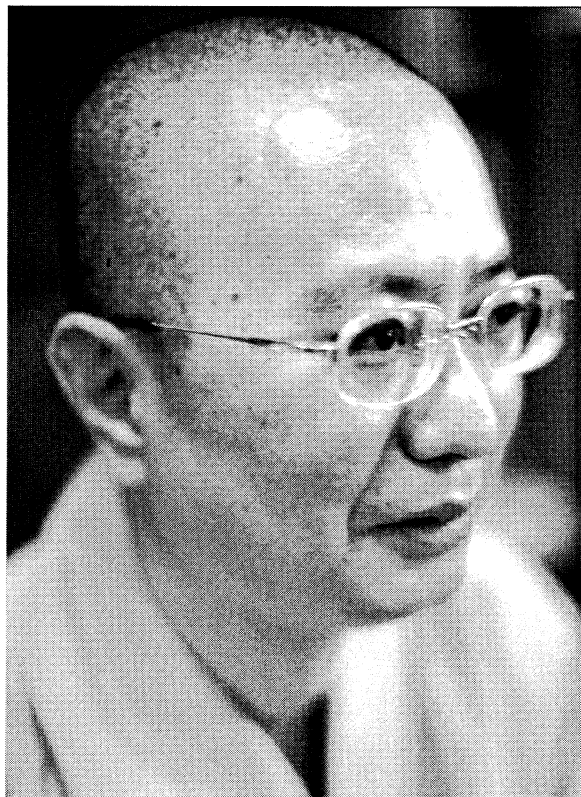


"한때 범어사는 9개의 선원이 열렸고, 100여 명의 대중이 함께 수행했을 정도로 수행 열기가 뜨거웠던 곳입니다."

동안거 결제를 하루 앞둔 11월 25일,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인각 스님(사직은 금어선원 소개로 인사를 대신했다. "일본 조동종의 한 선원은 8백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는데 금어선원에 일반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범어사는 한국 선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금어선원은 1899년 개원 이후 경허, 용성, 탄허, 만해, 성월 스님 등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거쳐간 곳. "문자로 된 것을 일체 보지 않고, 묵언을 기본으로 하며 인거 기간동안 신문밖

출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규율을 따르며 대중들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요." 금어선원의 울 입방자는 27명. 입방 희망자가 많아 정진 잘하는 스님들을 선발했다. 세수 70세를 넘긴 법랍 50년을 훌쩍 넘긴 스님부터 5년 남짓의 스님도 있다. 그러나 신심과 발심 면에서는 한국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 스님은 "참선에는 출제가 따로 없으며 단지 발심과 신심이 문제"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재가자의 정진을 당부했다. "대의지하 필유대오(大疑之下 必有大悟), 즉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는 말이지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참선법을 통해 모든 이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이판시판 화엄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실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씩씩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단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덕'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매일경제 창간 40주년 기념 특집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정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주목 주목 비만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최연상이 그의 손을 가지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딱 한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 1957년 태어나 중등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님 공회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자회 '불교강연신문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불보회'로 전념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계승 불교 성법스님 지음/신국만/값 11,000원/정신세계인 출판국

이판사판 判例事科 :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fax.02.747.7034

출간 2주 만에 교보 베스트 10 위권 진입(종교 부문!)